떳떳한 한국인 (7)

1. 주인정신

—韓國精神文化研究院提供—

本 稿는 선진국가를 指向하는 現代社会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実状을 投影하여 文化国民으로서 지녀야할 姿勢를 摸索하고자 掲載하고 있다.

앞으로 本 欄을 통해 主人精神·名譽心·道徳心과 더불어 국민 主体意識을 考察하고 協同精神·使命感·準法精神을 살펴봄으로써 協同社会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愛国心과 反共精神 그리고 統一意志를 照明해 봄으로써 先進祖国의 文化 国民 姿勢를 다짐해 보고 자 한다. ……編輯者註

나라의 당당한 주인

우리가 이 땅에 토착시키려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며 소극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주인 의식에 투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자질을 가졌을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민주 국가는 곧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 당나라의 장군 소 정방은 신라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술회하였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들은 또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섬기고, 아랫 사람들은 웃사람들을 자기 부형처럼 섬겨, 모두가 보람 있게 살고 있으니 신라 는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었다』 삼국사기의 김 유신전에 나오는 이 기록에 의하지 않더라도 한 민족의 성원 모두가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 안에서의 삶을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발전의 주체가 다름 아닌 자기들 자신임을 자각했을 때, 그 나라는 남이 넘볼수 없는 위신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이치는 고려의 명신 최승로의 언행록에도 나타나 있다. 『어떤 백성도 제자리를 얻지 못한 이가 없고, 어떤 이도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는 자가 없도다』라고 한 그의 말은, 우리가 지향하려는 복지 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다.

제 5 공화국의 국정 지표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우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보람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민주주의 토착화」란 말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이러한 주체 정신, 자주 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이 나라 역사 발전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익히 경험한 바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성과는 우리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인들의 손으로 돌아갔다. 어떤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나 그 성과를 내것으로 만들 수 없었던 시대

에 있어서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어찌 주체성이나 주인 의식의 견지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실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주인 의식은 거세되기 시작하여, 어느덧 우리 민족은 방관적 냉소주의와 극단적 저항 일변도의 고질적인 타성에 빠지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권을 되찾고 이 나라를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전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려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주인 정신은 다음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내 인생과 내 운명에 대한 주인 정신이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 줄 수 없듯이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줄기찬 삶의 의지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한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가정에 있어서의 주인 정신이다. 내 가정의 행복과 불행, 번영과 쇠퇴는 전적으로 나 자신, 가족 자체의 이러한 주체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 한 집안을 일으키느냐, 못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구차스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한 만고의 진리는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요, 모든 국민 생활의 근간이 곧 가정이라는 점이다.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진 가족들로써 구성된 가정이 번창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세째는, 내 일터나 직장에서의 주인 정신이다. 인간은 본래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각기 생계를 유지하고 저마다에게 과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직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직장에서는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위와 직책을 분담해서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는 비로소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이 자기의 직장과 직업에 관하여 주인 의식과 천직 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에 열과 성을 기울인다는 것은 보람 있는 삶의 또 하나의 필수조건이다.

네째는, 내 마을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주인정신이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사는 마을과 고장, 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원 각자가 내 고장을 깨끗이 하며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질서있고 아름다우며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있어 저마다 뚜렷한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서로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기풍 또한 보람 있는 삶의 필수 조건이라 아니 할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내 민족, 내 나라,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는 주인 정신이다. 나라는 동족이 함께 모여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다. 이 삶의 터전은 결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의 형성 발전과정과 국가 현실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민족, 자기가 속한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한 민족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융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